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10월 27일 목요일 (음 9월 27일) 제167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김영란법’ 영향 현실화... 농수산물분야 매출 감소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에 농수산물분야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일부 품목의 가격 하락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 선물물가로 인기를 끌었던 한우와 인삼(홍삼) 등의 가격과 매출이 동시에 폭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전북도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28일을 전후로 자체적으로 파악한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우선 한우(600kg)의 경우에는 시행 후 28만여원이 하락한 657만2,000원이었고, 박대는 2만1,000원 내린 4만9,000원, 국화(백선)는 3,170원, 홍삼은 4만 원으로 각각 가격이 떨어졌다.

이는 자체적인 포장단위 개선을 통한 가격 조정 및 추석(9월) 이후 선물 수요 급감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법 시행에 따른 수요 감소에 의한 시장가격 하락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5만원 미만 선물가격의 변화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을 취급하는 주요업체(법인 등)의 매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민감 품목은 법 시행 영향에 전년 대비 평균 20.1%의 매출이 감소했다.

한우, 법 시행 후 28만여원 하락한 657만2000원  
박대, 2만1000원 내린 4만9000원 · 홍삼, 4만원으로 ↓  
5만원 미만 선물가격의 변화는 큰 영향 없어

법 시행 직후 23일간 한우식당 등 관련 업소(4개 업소)들의 매출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한우식당의 매출은 9억5,149만원으로 법 시행 전 13억5,730만원에 비해 29.9% 감소했다.

박대의 경우는 2,900만원으로 시행 전 보다 900만원이, 국화는 187만7,000원 하락한 932만1,000원, 홍삼은 9억 4,000만원이 급락한 16억1,00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한우와 인삼 등은 고가소비에서 중

저가의 가공품, 과채류 및 가공신선식품과 간편식(HMR)으로 소비가 전환돼 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3만원 미만 제품의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1만원 상품 경우에는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단체·법인의 선물수요 감소 및 법적 적용 혼선(선물가능 여부 등) 등 심리적 영향으로 당분간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인사발전추진위 출범

26일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인사발전추진위원회 출범식에 김일재 행정부지사가 학계,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14개 시군 인사담당자와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출범식을 갖고 있다. (관려기사 2면)

## “‘최순실 게이트’ 특검, 당론으로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소집,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해임 등 청와대 비서진 사퇴를 요구기로 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힌 뒤 “앞으로 예정된 예결위와 상임위 일정을 충실하게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긴급 최고위에서 당론으로 특검을 추진키

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특검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이날 의총에서 결정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국회 국정조사 추진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서는 적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여지를 두고 있다”며 “사실 지금의 검찰에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검찰 상황의 추이를 보고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역시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검토 범위 안에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의총에서는 내각 총사퇴와 거국적 내각 구성 등을 주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내각 총사퇴 주장과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실효성을 놓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다”며 “그 역시도 우리 당이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26일 ‘비선 최순실’의 국

## 민주당 “국정조사는 추후 결정” 새누리 “특검 즉각 수용할 것”

정농단 사태에 대한 특검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특검을 반대 할 생각이 없다”며 “특검을 즉각 수용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실시를 위한 여야합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또 이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특검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 개도국 축산 전문인력 양성

전북대, 녹색부농과 글로벌 인재 양성 협약

우간다 농축산 분야 발전에 실질적 도움 될 듯

전북대가 개도국 축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는 지난 25일 농축산 분야 전문기업인 (재)녹색부농과 글로벌 산학협력·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우간다 마케레레대학 축산수도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산학연계형 석사과정을 운영키로 한 전북대가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추진한 것이다.

(재)녹색부농은 1995년 (재)한국양돈기술원으로 시작, 현장 중심의 기술 개발과 교육을 통해 양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과학화와 선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학연계형 국제축산개발 석사과정 개설·운영, 개발도상국 기술지원·인력양성, 경영자문·산업현장 애로기

술 지원, 공동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재)녹색부농을 비롯한 전북 지역 양돈농가 6곳의 지원을 받아 전북대는 관련 인력의 석사과정 교육과 양돈농가 실습 등을 진행하며 우간다 농축산 분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가 우간다 등의 개도국에서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해주고 우리나라의 학문적 지식 수출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농축산 분야 개발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통해 ‘불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국제개발 협력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농업을 통한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우리 농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기반 확보 등 글로벌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콩나물콩 품질 고급화 · 우리밀 산업화 위해

전주시-농진청 기술협약

신기술 연구 등서 협력키로

전주시와 농촌진흥청이 콩나물콩 품질 고급화와 우리밀 산업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와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원장 이영희)은 26일 시청에서 전주의 대표 식재료인 콩나물콩의 품질 고급화와 맥류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식량작물 기술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주 콩나물콩밭의 주원료인 콩나물콩의 적종종 선발과 품질 고급화 지원, 논 이모작을 위한 조생종밀 육성과 과자용 밀 등의 산업화 시범사업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 전환을 위한

작부체계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농진청의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하 식량작물 분야 애로해결 지원과 신기술의 현장실증 연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전주푸드 플랜 등 전주 미래농업 발전계획 추진은 물론, 콩나물콩과 우리밀 등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재배와 농산업화를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가을장마에 의한 재배의 어려움과 낮은 가격 등으로 인해 전주 콩나물콩 재배면적이 20% 줄어 현재 100여개 농가에서 200여톤의 콩나물콩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 매일 INDEX

2면 전북의 재정자립도 ‘하위권’

4면 태조어진 봉안행렬 전주서 재현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 제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 도아리 경진대회

KOREA YOUTH CLUB COMPETITION

### 11월 12일 전북대학교

- ▶ 주최: 여성가족부, 전북대학교
- ▶ 주관: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매일신문, JTV 전주방송
- ▶ 후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지자체 및 교육청 등
- ▶ 참가대상: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교 및 청소년시설 청소년동아리
- ▶ 참가비: 무료